

리듬체조 세계랭킹 1·3위 출전, 4위 손연재와 금빛대결



세계 스포츠 스타 대거 등록

양학선, 기계체조 1위와 경쟁
美대학농구팀 NBA급 기량
탁구·사격 정상급 대거 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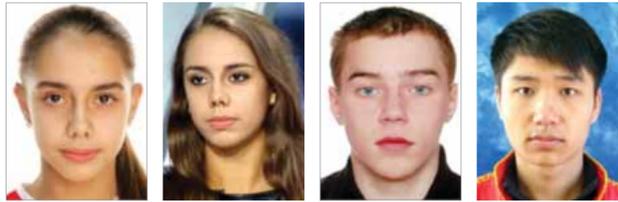
세계 스포츠계의 신예 스타들이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금빛 출사표를 던졌다.

10일 광주U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여자 리듬체조 세계랭킹 1위인 러시아의 마르가리타 마문과 3위인 아나 쿠드랴체바는 개인 엔트리 등록을 마치고 세계랭킹 4위인 손연재와 금빛 경쟁에 나선다.

마르가리타 마문과 아나 쿠드랴체바는 리듬체조 강국 러시아의 '에이스'로, 마문은 2013년 카잔세계U대회 4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휩쓸기도 했다.

남자기체조에서도 세계 최정상 선수의 기량을 볼 수 있게 됐다. 남자기체조 세계랭킹 1위인 우크라이나의 올레그 베르니아에프와 한국 기계체조 간판스타인 양학선이 멋진 도약을 펼친다.

올레그 베르니아에프는 카잔U대회에서 은메달(단체), 동메달(을 어라운드, 평



마르가리타 마문 아나 쿠드랴체바 올레그 베르니아에프 양 하오란

행봉)을 획득했으며 지난해 중국 광저우 난닝에서 열린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금메달(평행봉)을 거머쥔 세계 최정상급 선수다.

한국 기계체조 간판스타인 양학선도 고향에서 멋진 도약을 약속하고 있다.

양학선은 2010년 광저우아시아인게임 금메달을 시작으로 2011년 도쿄세계선수권과 2012년 런던올림픽, 2013년 안트워프 세계선수권까지 차례로 석권했다. 양학선은 이번 광주U대회에서 지난해 인천아시아인게임에서 오른 허벅지 부상으로 아쉽게 은메달의 색깔을 금메달로 바꾸겠다는 각오다.

지난 카잔U대회에서 금메달 5개 등 10개의 메달을 획득한 한국 유도는 이번 광주U대회에서도 스타급 선수들을 내세워 명성을 이어간다는 의지다.

2015아시아유도선수권 금메달리스트인 김원진(60kg급), 광동현(90kg급)과 동메달리스트인 안창립(73kg급), 카잔U대회 금메달리스트 왕기춘(81kg), 조구함(100kg급) 등이 개인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인천아시아인게임에서 금메달을

만 한국여자유도의 간판 김성연(70kg급)과 동메달을 획득한 정보경(48kg급)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탁구에서는 '제2의 현정화'로 불리는 탁구 기대주 양하오란이 금빛 메달 사냥에 나서고, 배드민턴에서는 여자복식 세계랭킹 3위인 중국의 루오 잉-루오 유가 개인엔트리에 등록해 한국의 이소희-신승찬(여자 복식 세계랭킹 10위) 콤비와 메달 색깔을 놓고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격에서는 중국의 양 하오란(10m 공기 소총 남자부 세계 랭킹 1위)이 출전해 세계적인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광주U대회 출전으로 일찌감치 관심을 모은 미국대학농구 명문 캔자스대학 농구팀의 개인엔트리도 윤곽이 드러났다. 캔자스대학 팀에서는 페리 엘리스와 프랑크 메이슨 등 미국 프로농구계를 이끌 신예 스타들이 선수로 나선다.

광주U대회 관계자는 "이번 광주U대회에는 세계 정상급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이라면서 "스타들의 경기 모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대구 달빛 스포츠 교류대회

광주와 대구지역 체육인들이 함께하는 제3회 달빛 스포츠 교류대회가 10일 오전 광주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및 체육인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U대회 성화 봉송 후원사 9곳 함께 뛰다 임직원 등 471명 주자 선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성화 봉송에 대회 후원사도 함께 참여한다.

성화 봉송에 동참하는 곳은 1·2등급 후원사인 SK C&C, SK텔레콤, 기아자동차, 아시아나, 삼성전자(이상 글로벌프리미엄파트너), 블랙야크, 롯데칠성음료, 광주는

행, 현대건설(이상 오피셜 파트너) 등 9곳이다.

후원사 임직원과 가족·사연을 응모해 선발된 일반인 등 471명의 성화봉송 주자(주주자·보조주자 포함)가 총 99개 구간을 뛴다. 이들은 인천·서울에 이어 천안·부산·광주 등 주요 도시를 돌며 광주U대회

를 알린다.

광주U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10일 "성화 봉송에 일반인들이 직접 주자로 나서는 것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이다"며 "후원사의 적극적인 성화 봉송 참여로 광주U대회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외교보다 메르스 차단 우선”... 여론 악화 부담도

최대통령 방미 연기 배경 외교부 “美에 양해 구해” 여야 정치권도 긍정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4~18일로 예정된 미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가적 불안감이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 방문길에 오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여론에 부담감을 느낀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미가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익 차원이나 우리 외교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음에도 국민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방치한 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애초 예정된 방미 일정을 고수하던 청와대가 이처럼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는 여론 악화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박 대통령의 방미 관련 여론조사(8~9일, 성인 7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 결과 순방을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3.2%, 예정대로 순방을 가야 한다는 응답자는 39.2%로 나타났다.

드문 일이지만 당사국의 일방적 사정으로 정상급 일정이 취소된 사례는 간혹 있었다. 지난 2010년 4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뒤 아이티와 멕시코를 찾을 예정이었지만 천안함 폭침 사고 수습에 전력하기 위해 아이티·멕시코 방문 일정은 급히 취소된 바 있다.

일단 정부는 미 측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데 주력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날 오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에게 연락을 취해 국내 사정에 따라 방미 연기 의사

를 전달하고, 미 측이 동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여야 정치권도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긍정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국면을 우선한 '결단'으로 평가하면서 존중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였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성공회대성당에서 열린 6·10 민주항쟁 기념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국민 안전에 대한 걱정과 메르스 상황에 비추보면 잘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늦었지만 국민건강을 더 챙기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 대부분은 이날 청와대 발표 직전 최고위원회의 때까지 방미 연기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등 당정 간 소통 부재를 또다시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낙타행렬 환상적 이미지 메르스로 퇴색 안되길



(116) 페르시아

면에 두 손을 포개어 가슴에 얹고 서있는 왕자를 향해 다가가며 반갑게 맞이하는 중국 공주의 모습과 온갖 나무와 꽃들이 풍부한 색채와 배합의 세계를 보여준다.

중동지역의 대표적 종교인 이슬람교는 종교와 관련한 그림에서 인간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금기되어 장인들은 그 대신 문양이나 형태 자체의 아름다움에 그들의 상상력을 발휘했고 아라베스크(arabesque)라고 하는 정교한 레이스와 같은 장식을 창조해냈다. 공브리치는 저서 '서양미술사'에서 “이슬람교권 밖에서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중동의 양탄자를 통해서 이러한 아라베스크의 신비한 문양들에 친숙하게 되었고 이 세밀화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흔히 우리들이 중동이라고 하는 옛 페르시아나 아라비아 지역은 페르시아 왕자나 아라비안 나이트 혹은 사막과 대성, 낙타들의 긴 행렬로 환상적인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이국적이어서 더

필사본에 실린 세밀화이다. 오른쪽 화면에 두 손을 포개어 가슴에 얹고 서있는 왕자를 향해 다가가며 반갑게 맞이하는 중국 공주의 모습과 온갖 나무와 꽃들이 풍부한 색채와 배합의 세계를 보여준다.



‘페르시아 왕자’

으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요즘처럼 가까워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다른 문명들이 서로의 개방과 교류를 통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이고, 현실은 언제나 영화나 드라마의 상상을 뛰어넘기에 더욱 공포스럽다. 메르스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기를 바랄 뿐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부작용: 수술 후 아간 빛반점, 노안시력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일 제 140611-중-59153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일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시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